

투데이 칼럼

오래된 청춘(Old youth) - (下)

**내**가 이 수프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사십년 가까운 세월 전, 히말라야 산 아래에서였다. 내륙국이고 세계 유일의 인두국교 국가라서 생선과 쇠고기가 귀한 곳이었지만 당시 70대로 보이던 백제 러시아인과 좀 더 젊은 덴마크인 부인의 부부가 운영하던 고급 식당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의 유명한 음식중 하나가 이 Borsch soup과 그가 개발한 "Chicken a la Kiev"였다. 발레 댄서였던 그 러시아인 Boris Lisanevich는 1905년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태어나 내가 네팔을 떠난 4년 후인 1985년 카투만두에서 사망했다. 그는 볼셰비키 혁명 후 1924년 몬테카를로 떠나 남미, 영국, 북베, 상하이 등에서 댄서로 활동하다가 1936-46년간 캄보디아에서 '틀립 300'을 운영하며 유명인사와 교류하였다. 당시 귀족 Rama 집안에게 밀려 권력을 잃은 네팔의 Tribhuban왕자와 자신의 크립을 통해 친교를 맺고 네투와의 친분을 통해 그가 왕권을 회복하는 데도 공헌을 세웠다고 한다. 그 인연으로 1951년 왕의 초청을 받아 카투만두에 정착하여 네팔이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도록 왕을 설득하고 최초로 그 곳에 호텔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그는 외교가에서도 명사였다. 그가 쓴 자서전 'Tiger for Breakfast'도 당시 흥미롭게 읽은 기억이 난다. 인터넷 사전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읽으니 당시 추억이 새롭다.

그는 네팔 최초 호텔 겸 식당 'Royal Hotel'에 이어 시내 중심부에 Yak & Yeti Hotel을 열어서 유명해졌다. 나도 이 두 곳에서 Borsch soup과 통닭 뱃속에 여러 가지를 넣어 조리한 그의 작품 "Chicken a la Kiev"를 즐겨 먹었다. 그 후 십여년이 지나 폴란드에 가니 Borsch soup이 우리 돼지찌꺼기처럼 가장 보편적인 수프였다. 우리 입맛에도 잘 맞아서 즐겨 먹었는데 이제 다시 일본의 실상 정상 노르웨이식 Hytte에서 이를 만난 것이다. 정상에서 내려가는 슬로프는 좁고 그 바깥은 엄청난 눈이 쌓인 계곡이라 겁이 났다. 자칫 슬로프를 벗어나면 눈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었다. 정상 부근의 전나무들이 흰 눈에 쌓여 완전히 얼어붙은 수빈 사이를 내려온 후 다시 리프트로 올라 살펴보니 리프트 하우스 위층이 고풍스런 'Crumpet Cafe'였다. 그 안에는 노르웨이 유명 스키인이 '시카고겐은 동양의 썸 모리츠(스위스의 유명 스키리조트)'

라고 평한 것을 기념하는 것인지 노르웨이 국기가 걸려 있었다. 시내 중심부에 있어도 손색 없는 고풍스런 분위기에 커피 맛도 일품이었다. 2007 이라고 이름 붙인 그 집의 원두 한 봉지를 사서 주머니에 넣어 귀국 후 살날 점심에 갈아 마셔보니 깔끔하고 풍미가 좋은 고급 일반식 커피 맛이 아주 만족스럽었다. 당시 이미 열의 '뽕야'에서 Borsch와 빵으로 배가 부른 터라 그 카페에서는 드립 커피만 마셨을 뿐 crumpet(밀가루와 이스트로 반죽하여 griddle 쇠판에서 구운 케이크) 맛을 못 본 것이 유감으로 느껴진다. 새벽에 눈을 고른후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슬로프를 처음으로 내려오는 재미로 매일 8시30분쯤 첫 리프트로 올라가서 눈이 많이 묻지 않은 오전 중에 스키를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인근 온천을 찾아 몸을 녹이는 재미가 좋았다. 주변에 온천이 많았지만 1천3백년 전부터 온천으로 유명하다는 유다나가 한 시

간 거리에 있어 두 번을 갔다. 1백여개의 온천여관이 밀집한 오래된 동네였다. 1천3백년 되었다는 온천에는 그 동네에서 숙박을 하지 않으면 입장 불가였다. 대신 노천탕이 있는 현대식 여관에서 히가에리(숙박하지 않고 당일로 돌아오기)로 재작년 관절관 절제 수술 후 가끔씩 쉬시는 무릎 관절을 달랐다. 나머지 이들에게도 숙소 가까운 동네에서 눈 덮인 산야를 조망하며 다른 손님은 없이 우리끼리만 노천부로 들렀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야생 원숭이들이 온천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인근의 노엔코엔은 산 길을 40분을 걸어야 되니 눈이 너무 쌓여 갈 수 없어 아쉬웠다. 귀국 길 새벽에도 끝없이 눈이 내리는 도로를 나가다 공항을 향해 4시간을 달렸다. 주변의 아름다운 설경이 초현실적으로 아름다워 이 게 꿈은 아닐지 문답을 나눈다. (우리 며칠간 꿈 온 것은 아니지? 모르죠. 우리가 내비지도... 겨울에 내리는 꿈은 없으니 우리가 눈 일까? 눈도 꿈을 꾸냐? 모르죠. 이 세상은 의문 투성이니...)

오래 사용한 몸은 이제 여기저기 삐걱거리지만 마음은 아직 푸르르니 우리 회원들을 노익장이라 보려는 오래된 청춘(Old youth)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아차! 인생은 모순덩어리 이므로... <끝>)

최병호  
주 노르웨이대사  
LA총영사 역임

사설

전북은 호남의 들러리가 아니다

도민들이 '전북 홀로서기'를 열망하는 지금이다. 그래서 여기 할 말이 있다. 제 뭇을 지키고 확보하는데 있어 도지사와 전북도의 관계자들은 눈에 불꽃이 살아야 할 것이라겠다. 여러 번 반복해 언급했던 바,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 시도와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유감이다. 이대로라면 다른 광역 시도들과 비교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뻔하다. 제 뭇을 찾고 확보하려면 자존심도 강해야 한다. 우리 전북이 오래 전부터 광주와 전남에 묻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광주와 전남이 전북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권이 크다고 해서 그에 물어갈 이유는 없다. 전북은 독립된 지자체이지 광주와 전남에 예속된 게 아니다. 전북은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가 아니라 는 이야기다. 국가 예산을 보아도 영남권과 비교해 호남권이 주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전북은 광주나 전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호남권

공공기관의 92%가 광주와 전남에 몰려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예전에 했던 말을 또 하거나 깨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향도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또 말하고 있거나 매년 그 발전상을 보지 않으면 미미하다. 전국 도단위 광역지자체의 인구 변동 상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전북지역만 인구가 감소했다. 다른 지자체 지역은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기에 거주 인구가 하릴없이 줄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고장의 낙후와 관련해 도민의 마음 고생이 심함을 알아야 한다. 지역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남에 치이고 광주 전남에 밀린 세월이 너무나 길다. 이처럼 오랜 낙후는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전북도의 관계자들은 도지사가 말한 그대로 제 뭇을 챙기는 역할스러움을 보여야겠다. 거듭 강조해 말하거니와 전북은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가 아니다.

정읍시와 고창군의 삼락농정 계획

전북도에 삼락농정의 안부를 묻고 싶다. 농민들에게 삼락농정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전북도는 가장 중요한 분야에 몰입하겠다는 농업분야와 관광분야와 탄소분야 등 3대 핵심 과제를 말한 적이 있다. 세 분야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고 그 누가 묻어 물어온다면 아무래도 농업 쪽이다. 왜냐하면 우리 전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오랜 농도인데다 지금도 많은 농가가 있기 때문이다. 정읍시와 고창군이 삼락농정 말하고 있어 그 기대가 크다. 삼락농정은 전북도가 발표한 그대로 '보람 찾는 농민' 제 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 그 목표이다. 정읍시는 올해 총 농업예산 1218억 원 중에 565억원을 우선 투입해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창군도 1113억원을 집중 투자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침이다. 두 시군 다 살 맛이 나는 농촌 건설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읍시와 고창군의 그같은 발표는 전북도의 삼락농정을 생각나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

할 말이 있다. 본보는 그 비전에 반색하면서도 우려했던 게 있다. 농촌의 현실을 보면 삼락농정의 실현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농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거듭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농사에 보람을 찾으려는 이가 드물고, 농산물이 소비 시장에서 제 값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농촌을 찾는 귀농인이 드문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각 시군 지자체의 삼락농정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계속 독려해야 한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삼락농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투자되는 돈의 액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본보는 전북도가 발표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수요자 맞춤형 수출 전략이 필요하고 농생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다. 그런데 그게 아직은 시기상조인 모양이다. 후속 발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하다는 이야기다. 어쨌든 전북도는 삼락농정이 도정 최우선 과제라고 했으므로 농가에 실익되는 쪽으로 과감한 행보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제언

포켓몬 GO 가짜 APP 조심하세요

최근 포켓몬GO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10대에서 60대까지 공원, 문화재 등 포켓몬스터가 있는 곳이나, 희귀 포켓몬이 출몰하는 지역엔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공원이나 문화재 박물관 등 차량통행이 없는 곳에선 위험이 덜 하지만, 도로를 건너나 운전 중에도 포켓몬을 보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안전하게 포켓몬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켓몬GO가 인기를 끌면서 유저들을 상대로 한 가짜 APP도 성행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 직장인들은 학교에서의 시간과, 근무시간에 포켓몬고를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강해지기가 힘들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

가 GPS를 이동시켜 준다는 앱을 판매하고 있다. 점점 가짜 GPS 조작 유료 앱이 범람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를 호소하는 구매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포켓몬GO에 적용되지 않는 GPS 조작 앱이 1달러에서 3달러사이의 소액의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여 잘 알아보지 않고, 급한 마음에 결재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없어 시골이라 포켓몬스터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겠지만, GPS 조작은 게임의 규칙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GPS 조작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가짜는 '소프트 밴'이라는 가벼운 징지로 끝나지만, 이를 계속 사용할시 영구정지까지 당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키운 포켓몬이 사라 질 수도 있다. 박진경 정읍시 중앙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방어보행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하자

전에 법원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다. 과실이 있는 보행자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보행자들은 밝은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자동차가 보행자들을 잘 보고 피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운전은 오래본 운전자들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두운 계통의 옷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다가 보행자 가까이 접근해서야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 새벽시간대에는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만큼 야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방어보행을 하며 조심해야 한다. 보행자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해도 운전자가 보지 못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동차가 주위에 지나가는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 좋다. 유남규 원산경찰서 서신지구대 1팀 경장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